

증권 디이제스트



KB증권

배당소득세 부담 낮췄다
‘글로벌 고배당 랩’ 출시

KB증권은 5일 차별화된 운용 전략으로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춘 ‘KB able 투자자문랩-글로벌고배당’을 출시했다.

이 상품의 투자대상은 주로 부동산, 리츠 등 인프라 자산 및 해외ETF 등 고배당 자산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꾸준한 배당·이자가 발생하는 자산 발굴이 강점인 플레이어나 투자자문이 종목선정 등 운용자문을 담당하고 KB증권 랩(Wrap) 운용부가 운용할 예정이다. 전통적인 고배당투자는 배당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현금배당을 받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김문호 기자



한국투자증권

해외선물 신규고객 이벤트
연말까지 수수료 1.99달러

한국투자증권은 올 연말까지 해외선물 투자자를 위한 ‘해외선물 수수료 1.99달러 이벤트’를 실시한다.

해외선물옵션 신규 계좌 개설한 고객 또는 지난 3개월간 거래가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고객이 원하는 3종목을 선택해 이벤트 참가 신청을 하면 6개월간 1.99달러의 수수료로 해외선물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이 선택한 종목의 결제통화가 미국 달러가 아닌 경우에는 1.99달러에 준하는 해당 결제통화 수수료가 적용되며, 거래비용이 1.99달러가 넘는 종목의 경우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할인된 수수료가 결정된다.

/김문호 기자

기움증권

연 17% 수익 추구 ELS 2종

기움증권은 국내 주가지수 또는 국내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주가 연계증권) 2종을 공모한다.

‘기움 제855회 ELS’는 원금 90% 지급 조기상환형 ELS로, 만기가 1년이다. 조기상환평가일(3·6·9개월)에 기초자산인 셀트리온 보통주와 현대차 보통주의 주가가 최초기준가격 이상이면 세전 연 17%의 수익률로 조기상환된다.

조기상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만기평가일(12개월)에 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보다 상승했다면 기초자산 상승률이 낮은 종목의 상승률 만큼을 수익으로 지급한다.

/김문호 기자

주택 부문·정비사업 ‘강세’… 수주 잔고 ↑

상반기 건설사 성적표

⑩ 롯데건설 <끌>

매출액 전년比 9.1% 상승

6월말 잔고 26조8287억

해외 사업·신규 수주 약세

“국내 시장을 뛰어 넘어 글로벌 회사로 도약하는 조석을 다지겠다.”(올해 1월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의 신년사)

롯데건설은 올해 국내외로 뛰고 있다. 주택사업을 강화해 호실적을 올리고 수주 곳간도 채웠다. 다만 제시한 목표에 비해 해외 수주 비중이 작아 ‘글로벌 회사’로의 도약은 아직 답보상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건설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2조7903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5568억원) 대비 9.1% 늘었다.

영업이익도 2357억원으로 전년 동기(1993억원) 대비 18.2%, 순이익은 1005



롯데캐슬 아파트. /롯데건설

억원으로 1년 전(633억원)에 비해 58.9% 증가했다.

국내 주택사업의 호조가 실적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 상반기 매출액 중에선 주택이 1조 7083억원, 영업이익에서도 주택 부문이 1272억원으로 각각 전체의 61.2%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주택부문의

매출액이 1조2438억원, 영업이익은 970억원으로 각각 전체의 48.6%에 그쳤다.

정비사업에서도 강세를 보였다.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4400억원), 안산 주공 5단지 1구역 재건축(1833억 원), 의왕 고천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1099억 원) 등의 수주고를 올렸다.

자연스레 수주 잔고도 늘었다.

롯데건설이 올해 6월 말 기준 보유한 수주잔고는 자체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26조8287억원이다. 전년 동기(25조 6123억원) 대비 4.7% 증가한 수준이다. 하석주 대표가 취임하기 전인 2016년 말과 비교하면 수주잔량이 14.5% 가량 늘어났다.

그러나 해외 사업에서는 약세를 보였다. 롯데건설은 그동안 국내 주택건설에 집중한 만큼 올해부터는 해외사업 확장을 통해 글로벌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수주와 실적이 오히려 줄었다.

롯데건설의 올 상반기 해외 수주잔고는 642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7.2%(3807억원) 감소했다. 해외

매출도 109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9%로 줄어 들었다.

‘인니 Riau IPP(2231억원)’, ‘베트남 롯데몰 하노이 신축공사(1720억원)’ 등 대형 공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규 수주도 미미한 수준이다.

롯데건설은 올 상반기 인도네시아 리아우 민자발전 프로젝트, 롯데 심양 롯데 월드 기술 자문 CM용역 4·5차, 롯데 심양 복합 개발프로젝트 9차 기술자문 용역, 캄보디아 사타파나은행 본사 신축공사 등을 수주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롯데건설의 신규 해외수주액은 3억7908만달러로 연계 12위다.

새 아파트 브랜드 출시도 미뤄지고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를 내놓을 계획이었다. 최근 현대 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의 고급화 경쟁에 뛰어들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새 브랜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사상 첫 ‘1000조원’ 돌파

펀드수탁고 541조… 3.6% 증가

사모펀드·채권형 부동산 등 늘어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이 사상 최초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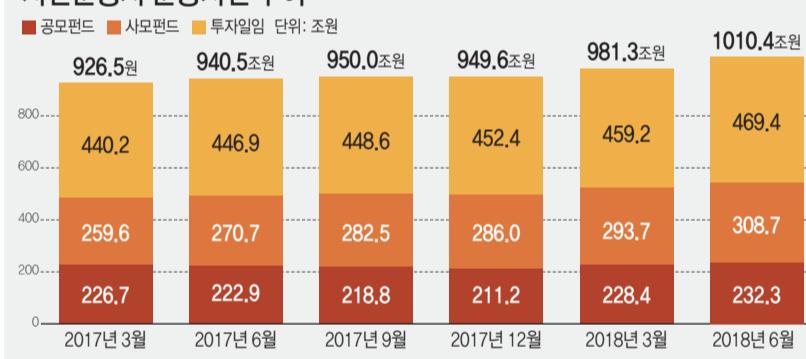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228개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펀드수탁고, 투자일임계약고)은 1010조원으로 분기 중 3.0%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펀드수탁고는 541조원으로 3월 말 대비 3.6% 증가했다.

공모펀드는 전분기 대비 1.7% 증가했으며, 채권형과 머니마켓펀드(MMF) 위주로 자금이 들어왔다.

사모펀드는 전분기 대비 5.1% 증가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추이



했고, 채권형과 부동산, 특별자산 등이 주로 늘었다.

투자일임 계약고는 469조원으로 3월 말 대비 2.2% 증가했다. 보험사·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일임이 늘었다.

228개 자산운용사 중 137개사가 흑

자, 91개사는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회사 비율은 지난 1분기 36.0%에서 2분기 39.9%로 다소 높아졌다.

특히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 154개사 중 절반이 넘는 81개사가 적자를 냈다.

2분기 자산운용회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5.0%로 전분기 대비 2.9%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이 늘고 수익성지표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문사모운용사를 중심으로 적자비율도 높은 상황”이라며 “수익기반이 취약한 회사의 재무현황과 자산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맥쿼리인프라 “대주단 운용사 교체 반대”

MKIF, 1000억 상환요구 가능해져
“교체 반대, 투자자 주의의무” 판단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MKIF는 임시 주총에서 운용사 교체 안건이 통과되면 신용공여 대주단이 MKIF에 대출금 1000억원 이상의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별도로 2000억원 수준의 회사채 상환 요구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또 MKIF 주식 70만주를 보유해 지분율이 0.21%인 영국계 NPJ 자산운용이 MKIF의 운용사 변경에 반대하며 다른 주주들에게도 반대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표했다고 MKIF는 전했다.

NPJ는 서신에서 “MKIF 보수 체계는 글로벌 표준과 일치한다”며 “코람코자산운용은 인프라 투자 경험이 거의 없으며 현재 제반 환경 등을 검토한 결과 운용사 교체 반대가 투자자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손엄지 기자 sonumgi301@

디벨로퍼 역량강화로 성장세 지속

자이 S&D

GS건설의 자회사인 자이S&D(Service & Development)가 디벨로퍼(부동산 개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환열자이S&D 대표는 5일 “‘선진국형 종합 부동산 기업’이란 목표를 향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며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를 거듭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가 지향하는 ‘선진국형 종합 부동산 기업’이란 단순 시공을 넘어 개발 단계부터 관리·운영까지 아우르는 모델을 뜻한다.

자이S&D는 건물 관리·운영 전문 회사로 지난 2000년 4월 전신인 주이지빌로 출범했다. 이후 2016년 자이 서비스를 합병하고, 올해 3월 사명을 자이S&D (Service & Development)로 바꿨다.

부동산 관련 운영 노하우와 IT 기술력을 융합한 부동산 관리·운영 분야의 전문

기업을 넘어 디벨로퍼(Developer)로 새로운 도약을 하고자 사명을 바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자이 S&D의 출범 당시 자본금은 111억원으로, 주택관리업체 중 최대 규모다.

주력 사업 분야는 건물의 자산관리와 홈네트워크 시스템 운영이다. 운영 노하우, 첨단 IT시스템을 활용한 관리·운영을 통해 고객에게 품격 높은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는 동시에 건물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있다.

특히 자이S&D는 아파트와 오피스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 같은 인프라 시설 등 기업 및 기관의 다양한 부동산 운영 관리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자이S&D는 디벨로퍼로서의 역량도 강화한다. 자이S&D가 디벨로퍼로서 첫 선을 보일 사업은 남양주 별내신도시의 주거용 오피스텔 ‘별내자이엘라’로 오는 10월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주택 브랜드는 GS건설의 자이(Xi)와 자이엘라(Xi-ella)를 그대로 사용한다. /채신화 기자